

미국의 본격 COIN기를 본다.

민수부문서 광범한 용도 재평가



노드아메리칸 공장의 유도로에 선 코인기들

군용기의 일종에 COIN기라는 기종이 있다. 귀에 익지않은 이 비행기는 Counter Insurrection의 앞단어에서 두자, 뒷단어에서 두자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대폭동, 대반란을 의미한다. 즉 본격적 전쟁이 아닌 소규모의 분쟁진압이나 게릴라전용으로 개발된 특수 항공기의 일종이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정찰, 관측, 수송 등 임무외에 소규모 공대지 공격도 하는 다용도기인데 그것이 지금 다시 쓰이려 하고 있어 그 전모를 알아본다 (편집자주)

일선에서 COIN기 원해

본격적인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찰력만 가지고는 어려운 지역분쟁 또는 소요가 생기거나 게릴라와 싸울 경우 중장비를 갖춘 공격기를 내세워 봐야 비경제적일 뿐이다. 그야말로 모기에 도끼로 대항하는 셈이다. 여기서 그런 소규모 싸움에 도움이 될만한 새로운 개념의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50년대경부터 여러곳으로부터 나왔다.

게릴라 상대의 싸움에서 이에 필요한 항공기를 절실히 원한것은 일찍이 2차대전중 태평양에서 섬에서 섬으로 일본군을 쳐 올라올때 일본군 게릴라

부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던 미 해병대에서였다. 해병대뿐 아니라 미군 전체가 게릴라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 무렵에는 전투 공격기의 제트화가 이루어져 소규모 전투에는 소용없게 되었다. 그래서 보다 간이형이고 값이 싸며 최전방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이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어 중남미, 동남아 등지에서 대게릴라전을 위한 항공기를 구하는 곳이 많아졌다.

여기서 미국은 미군용 뿐 아니라 이

들 지역의 수요도 겹쳐서 보다 엄격한 군사지원계획(MAP)이 필요해져 코인기의 제작을 검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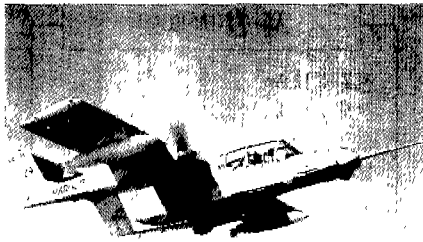
해병대가 앞장

이런 배경아래서 1956년에 미해병대와 육군이 공동으로 그루만 AO-1/AF-1(나중에 OV-1으로 됨)모호크의 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육군의 경우 전선정찰, 관측이 주임무로 공격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해병대측은 예산문제로 도중에서 하차해 버렸다.

1959년이 되어서야 미해병대는 장래 있을 수 있는 분쟁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초경량 공격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첫째 값이 싼것을 주안점으로 하였고 때문에 처음에는 자중 800kg에도 못미치는 경비행기 정도의 기체가 계획되었으나 군용기의 상식대로 여러가지 요구성능이 추가되어 차츰 대형화하다보니 중량도 자연 늘게 되었다.

1961년이 되자 미해병대의 장비 조달 창구인 해군측이 이런 특수 항공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방부도 흥미를 보여 해군측에서 요구한 성능에 병사와 경화물등을 실을 수 있는 수송능력을 추가했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전방으로부터 부상병의 후송이나 특수공작요원 또는 정찰팀의 하강 능력이 추가되었다.

1961년은 미국의 대 게릴라 전략에



월남전에서 활약하는 COIN기

일대 전기를 초래하는 해였다. 이 때 발족한 케네디 정권은 동서의 핵이 되는 전면 대결에 대응하는 한편 국지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속칭 정글 짐 부대가 창설되어 월남 전선에 파견되었고 아울러 T-28D, B-26등의 항공기를 이용했으나 성능이나 강도에 문제가 있어 전용 항공기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미국방부도 동의

해병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군에서 등남아시아의 게릴라 전투용의 COIN기를 요구하게 되고 육군에서는 보다 공격적 성능이 우수한 기체를 바랐다. 여기에 국방부도 드디어 나서게 되었다.

당시의 맥나마라 미국방장관은 경제효율주의를 내세워 3군의 장비 공통화에 의한 군사비 지출절감이 시도되어 COIN기도 3군 공용을 전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LARA계획이라 이름지어 설계가 제안되었다.

이때 제안된 성능을 보면 762mm기

관총 4정의 고정무장 외에 밤에는 910kg의 폭탄등을 탑재할 수 있고 1시간의 작전시간을 포함해 전투행동반경 90km, 이착륙거리 244m라는 STOL성을 지니게 하여 함상이나 비정지에서도 운용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폭탄 장전을 떼어내면 900kg의 병사나 화물을 실을 수 있고 또는 5명의 특수요원을 중무장 상태로 수송 낙하시킬 수 있는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대요건이 가격이므로 관급의 엔진을 제외하고 1기당 10만달러를 목표로 했으나 해군은 이 값으로는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30만달러 정도는 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국방부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실로 11개사에서 설계제안이 제출되었다. 비치, 더글러스, 컨베어 차저, 헤리오 록히드, 마틴, 노드 아메리칸, 록웰의 7개사가 먼저 선정되어 엄격한 평가를 거쳐 1964년 8월 노드 아메리칸 록웰의 NA-300이 채용되었다.

동년 10월, 노드 아메리칸사는 1,700만달러에 7기의 원형제작이 계약되었다. 이 원형에는 YOY-10A라는 제식명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라이벌 6개사 가운데 컨베어사는 이 결정에 납득하지 못했다. 동사는 일찍부터 COIN기 연구에 나서 LARA제안 요구가 나오자 곧 설계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인 부담으로 원형기를 제작하기 시작, 35주후인 1964년 11월에 첫비행을 성공시켰다. 컨베어사의 원형기도 기본적으로는 NA-

300과 같은 쌍동체형이지만 중간 날개 형으로 엔진도 다른 것을 탑재하고 있었다. 컨베이어측은 이 원형기로 재심을 요구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여 노드 아메리칸이 생산에 나섰다.

브롱코 탄생

YOV-10A 1호기는 계약으로부터 8개월후인 1965년 6월 노드아메리칸텍셀사의 코론바스공장에서 출고되었고 한달후인 7월 16일에 첫비행했다.

YOV-10A기는 쌍동체의 윗날개식으로 이륙거리 350m라는 STOL성능을 지니는 최첨단형이며 7.62mm기관총 4정과 500발 들이 탄약통을 4개 내장하고 국방부가이 요구한 전 성능을 만족시켰다.

원형기 7기는 1966년 10월까지 전량이 납품되어 3군에서 고루 비행시험이 계속되었고 때마침 베트남 전선에서 여러가지 실전에 따른 성능 개조가 주문되어 생산형에는 여러가지가 반영되었다.

주요한 것으로는 셀프 시링 탱크를 채용했고 통신장비를 충실히 한 외에 소구경 화기로 조종실 보호를 피하는 외에 엔진을 고출력으로 강화했다.

생산경과

미국 해군은 1967년에 해병대용으로 OV-10A형 114기를 발주한데 이어 공군은 66-68년간 150기를 발주했다. 육군은 따로 발주하지는 않고 공군용을

제 원 (OV-100형)	
전폭 : 12.2m	
전장 : 13.4m	
전고 : 4.6m	
날개면적 : 27.0m ²	
자중 : 3,127kg	
총중량 : 4,494kg	
최대이륙중량 : 6,550kg	
엔진 : 기어렛 T76-G-420/421 1,040Shpx2	
연료용량 : 954L + 568L (증조시)	
최대속도 : 463km/h(250노트)	
순항속도 : 360km/h	
해면상승률 : 853m/min	
실용상승한도 : 9,150m	
전투행동반경 : 306km	
무장 : 폭탄등 최대 2,080kg, 20mm기관포 1+7.62mm 기관총x4, 탄약 2천발	
승무원 : 2인	
승원 : 무장병사 6인	

지원받게 되었는데 별명은 브롱코라고 지었다.

양산형인 OV-10A 초호기는 1967년 8월 6일에 첫비행 한뒤 1969년 4월까지에 전량이 인도되었다.

수출용으로는 서독이 B형 18기를 구입했으며 타이랜드에서 C형 32기, 베네주엘라에서 E형 16기, 인도네시아에서 F형 16기를 도입했는데 이 수출은 미국 해외군사 판매처를 통한 것이었다.

서독은 목표물 예인용으로 쓰기 위해 도입했으며 타이랜드는 국경지대의 순찰용으로 사용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티모르도의 반란 진압에 출동하는

데 이용했고, 베네주엘라에서는 1993년 반란 때 반란군이 항공기를 빼앗아 대통령 관저를 공격하는데 쓴 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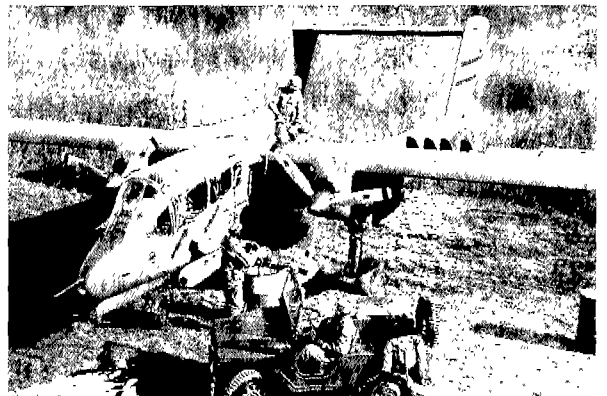
브롱코기는 도합 360기가 생산되었을 뿐 당초 미국의 3군이 쓸 수요만으로도 1,000기 이상이 될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브롱코기의 업적

A형이 처음 취역할 당시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때여서 당연히 베트남 전선에 배치되었다. 공군에서는 1968년 7월에 비엔 호아기지에 배치되었고 해병대도 다낭기지에 배치하여 베트남과의 전투에 투입되었다.

OV-10A는 원래 대 게릴라전을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베트남 전쟁은 이미 게릴라전의 규모를 떠난 정규전의 양상을 띄워 본기의 제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브롱코기가 공격용에도 쓰였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전선 항공관제기로 더 많이 이용되었다. 전선 항



야전에 쓰이는 브롱코기 : 수동펌프로 연료를 보충하고 있다.

공관제란 전선 상공을 비행하면서 적군의 소재를 찾아 확인하면 발연탄 등을 쏘아 아군 전폭기가 공격하도록 그 위치를 알리는 것이 주임무이다.

베트남과 같은 밀림이나 복잡한 지형에서는 제트기 같은 고속기가 필요 없다. 그 보다는 저속의 브롱코같은 프로펠러기가 날아가면서 시계가 넓고 운동성이 기민해 적 정찰에 많은 공을 세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선항공관제라는 임무는 매우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제공권이 이쪽에 있어 적 항공기가 도전해 오지 않는 조건이 필요하며 대공포화나 미사일등으로 공고하게 방공체제와 대공 사격 장치가 완비한 곳은 알맞지 않다. 이런 지역에서는 A-100F나 TA-4등 복좌 제트기에게 맡겨야 한다.

한편 미해군은 해병대로부터 브롱코기를 차용하여 1969-72년 사이에 메콩강 유역의 수색, 순찰임무에 사용했는데 역시 헬리콥터나 제트기 보다 우수한 전과를 거두었다. 공군은 베트남 전쟁중 3개 비행대의 OV-10A부대를 투입하여 1973년까지 임무에 당하였다.

최근의 브롱코부대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미공군에서는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본토에서 4개의 브롱코 부대를 운용 배치한데 이어 한국의 오산기지에도 1988년까지 이 기종을 배치, 이용했다.

공군에서는 일부 부대에서 1992년까

지 브롱코가 활약했으나 그 후는 전체가 퇴역한 형편이다.

한편 미해병대에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무장을 강화한 개조기를 사용했고 그 후 계속 일선에 배치, 취역하면서 1991년에는 다시 한차례 개조하여 이것을 OV-10D+라고 불렀다.

1991년 걸프전때 13기가 현지에 파견되었으나 그 때는 이미 브롱코기와 같은 성능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하여 2기가 이라크군에게 격추되는 비운을 맞보았다.

민수용으로 새 평가

그리하여 1994년 4월까지에 차례로 퇴역하여 26년에 걸친 브롱코기의 활동은 종지부를 찍게되었다.

이와같이 미국에서는 군사목적으로의 사용이 중지되었지만 이 항공기의 성능과 용도가 다시 평가되어 민수용으로 쓰일 길이 주목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요긴한 것이 미연방 산림국의 소방 통제기로 쓰이는 것이 마약단속국의 마약사범 감시기로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또한19 89년에 미군사용 잉여기가 모로코 6기, 필리핀에 24기등 개별적으로 공여되어 공중감시, 소요진압, 산림 방화 등 여러 용도에 쓰이고 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남사군도의 영



연방토지조사사업에 이용되는 브롱코기

유권문제를 두고 공중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 행정부에 도입되었다가 다시 민간에 불하되어 미국내의 토지조사에 쓰이고 있는 것만도 10여기에 달하고 있다.

항공기는 지금 그 용도로 보아 저변이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냉전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과거 군용기에 쓰인 나머지 비밀로 취급되던 각종 첨단기술과 우수한 장비가 민간용의 평화용도에 전용되는데 따라 과거의 항공기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가령 대형 비행정을 이용한 해난구조용이라든지 다목적 항공기에 의한 수색, 정찰, 구난, 구호 등의 사용도 그런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 항공기는 하늘을 나는 속도와 직선거리 비행이라는 편리성 때문에 인류문명의 진보와 세계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속도가 느린 과거형 항공기는 또 그 나름대로 특징을 지니고 있어 항공기를 이용한 보다 편리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